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2월 7일(주일) 제1086호



지난해 설날수련회에서 베트남 예배공동체 지체들이 서울대공원을 방문했다.

이주민 위한 설날수련회

온누리M미션, 2월 14일까지 각 나라별 개최
예수 사랑 전하고, 한국 문화도 알리는 축제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을 위한 설날수련회를 시작한다.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설날수련회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각 나라 예배공동체별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가족들과 떨어져 타국에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이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

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주민을 위한 설날수련회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예배, 전도집회, 세미나, 중보기도, 간증, 레크리에이션, 예수영화 관람, 성경퀴즈대회 등을 준비했다. 윗놀이, 만두 빚기, 민속촌 탐방 등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코너도 있다. 온누리M미션측은 “이번 설날수

련회를 통해 이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의: 010-3937-3927

후원: 하나은행 (온누리교회)

573-810031-7460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 일정

공동체	일시	장소
러시아연합	2월 7일~10일	강화 말씀의 집
서빙고 네팔	2월 8일	군포청소년쉼터하나로
서빙고 아랍	2월 6일~7일	선교관 402호
서빙고 몽골	2월 8일~10일	팀수양관
안산 캄보디아	2월 7일~9일	가평 남부교회수양관
안산 스리랑카	2월 6일~8일	대부도 해바라기펜션
안산 태국	2월 7일~9일	안디옥교회
평택 몽골	2월 7일~9일	팀수양관
안산 몽골, 인천 몽골	2월 6일~8일	영흥도 설만화물가
안산 중국	2월 6일~7일	스타트리
안산 필리핀	2월 7일~8일	스타트리, 춘천
안산 베트남	2월 7일~8일	M센터 1, 3층
안산 네팔	2월 8일~9일	M센터 2, 4층, 광명기학동굴
안산 미얀마	2월 14일	M센터 2, 3층
안산 우즈베키스탄	2월 7일	스타트리
안산 인도네시아	2월 7일~8일	M센터, 용인민속촌

2016 목회사관학교 ‘예수바보행전’

온누리교회 교역자 35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쁨을 만끽한 2016 목회사관학교(Onnuri Pastor Academy)가 끝났다.

2016 목회사관학교는 ‘예수바보행전’을 주제로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전임교역자와 파트교역자가 함께 참석해 더욱 뜻 깊

었다.

2016 목회사관학교는 ‘예수바보행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

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목회사관학교 첫날인 2월 1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저명한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를 초청해 목회자 일일 공개 세미나 ‘세상을 놀라게 하라’를 개최했다. ‘선교적 크리스천의 5가지 습관’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온누리교회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와 신학생도 참석했다.

2일부터 5일까지는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쁨을 만끽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재훈 담임목사,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가 강의했다.

그룹워크숍, 조별콘서트, 큐티나눔, 아웃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관련기사 10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신현석 변호사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7년째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상담실을 찾아오면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다.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피해, 부동산 사기사건, 행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의 법률자문을 해줬다.

“크든 작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현석 변호사를 만났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굳은 신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조이자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무료법률 상담해주는 신현석 변호사

“은사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 살고파”

2005년, 김미영(가명)성도는 지인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법을 잘 알지 못했던 김미영 성도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1층에 있는 상담실을 찾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미영 성도가 지인의 소개로 건축업자 최철수(가명)씨에게 지하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지상 1층을 매매했다. 최씨는 매매 대금과 나머지 보증금 임대료도 정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했다. 최씨는 주택 전세금 1억 5천만 원만 주고 잠적해 버렸다. 이 사건에 대해 신현석 변호사는 건물에 대한 수익권을 되찾는 소송과 1억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당연히 김미영 성도는 승소했다. 그런데 최씨가 매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김미영 성도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김미영 성도가 법적 절차를 어떻게 알아야하는지 물심양면 도왔다. 최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15년 4월, 대법원이 김미영 성도의 손을 들어줬다. 신현석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김미영 성도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충격이 매우 컸다. 그런 그를 신 변호사가 곁에서 도왔다.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적인 위로도 해줬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모두 신 변호사 덕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크리스천 변호사의 삶

그는 20년차 베테랑 변호사다. 그동안 민·형사, 부동산 소송, 교통사고, 교회 행정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료에 개의치 않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했다. 서류를 얼마나 꼼꼼히 여러 번 보는지 철두철미함이 돋보이는 사람이다.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익숙하다.

신 변호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신념 때문이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조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상담실에서도 그 신념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자신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의뢰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다. 그것이 은사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라고 했다.



서빙고 온누리상담실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신현석 변호사.

강직하고, 신념이 투철한 사람답게 재미있는 일화도 많다. 어느 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의뢰인이 “이 재판은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신 변호사의 노력과 변호에 만족하고, 통쾌하다”고 한 적도 있다. 신 변호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 없이 살 수 없다”

“보통 일부 나쁜 사람들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법적 책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80~90% 사람들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입니다. 또 성도들도 언제 어디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법적문제와 이해관

계가 복잡해진다. 문제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이 법적인 권리를 찾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신 변호사는 누구든지 법적인 지식이 없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현대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현석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각별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률상담 요청을 받으면 더 적절하게 도와주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사법고시 세 차례 낙방하고 만난 하나님

신현석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시절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8남매 중 7째 아들이다. 가난한 시골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아들이다.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군에 입대해야 했다. 집안의 재정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형이 군 제대 후 복학해야 했고, 막내 여동생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인생은 새옹지마였다.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치른 1차 사법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군복무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그에게 군 생활은 혹독했다. 여러 번 다짐하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군대에서도 법학 책을 놓지 않았다. 아무리 그레도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군 제대 이후 두 번째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신림동 고시촌으로 향했다. 사법시험 3개월을 앞두고 새우잡을 자며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지인들을 통해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공부 가 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이번에는 3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두 번째 낙방이었다. 이번에는 사법시험 과목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영어에서 독일어로 바꿔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 결과 고득점으로 1차 시험에서 합격했다. 2차 사법시험은 과락제가 적용됐다. 당시 헌법 과목이 40점 이하면 과락이었는데 39.66이었다. 세 번째 낙방이었다. 뼈아픈 고통이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초인적인 힘은 웬만큼 노력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제야 발견을 교회로 돌렸다. 혼자 기도실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 3번의 실패를 딛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온갖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신 변호사는 매월 둘째 주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는 친절하고, 정확한 변호사로 통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1층에 위치한 상담실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다.

“법률상담을 예약하고 사정이 생겨 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저와 함께 법률상담해 주실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 010-4267-4528(박영미 팀장)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주일강단



문봉주 목사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요한복음 6:23~29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하늘의 양식을 구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24~27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표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신 6:11).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준비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았고, 파지 않았고, 심지 않았던 것을 먹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전력투구하지 않아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2~5).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생명은 하늘나라의 아버지 안에서 이미 보호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참 생명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움직이고, 숨 쉬고, 살아가는 생명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의 아버지 안에 이미 들어가서 보호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내 손이 하고 싶은 것, 내 눈이 보고 싶은 것, 내 입으로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내 발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에서 추수할 것을 보고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 일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관심을 땅에 있는 것에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심이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기 원하고, 돈을 더 벌기 원하고, 예수 믿어서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13년을 도망 다니면서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때만 하늘의 양식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여호와를 사모하며 예배드렸습니다. 24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도 땅에 있는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땅의 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28~29절).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새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낼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했을 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선택권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불모의 땅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좋은 환경을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낼 것입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길을 낼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어 풍요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구함으로

불모의 땅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환경이 바뀝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콩가루 같은 보디발 군대장관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서 일하니 형통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니 집안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도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믿음을 줍니다.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내게 적용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 양식을 구함으로 땅의 축복도 누리시고,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축복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1년 365일 예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기

2. 바로 믿기_복음과 신앙생활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의 승전보 또는 국가적인 좋은 소식으로 사용된 헬라어 ‘유양겔리온(good news, 복음)’은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양겔리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복음 선포는 마태의 개인적 신앙고백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사 7:14).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임마누엘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확증한 이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갖게 하는 걸림돌 중 하나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결합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세상적인 상식이요, 통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그런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의학적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원하기만 하면 처녀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인간의 의술이 가능케 한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과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GOD)이라 할 수 있을까?

이사야와 마태가 동일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이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선포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되기 시작한 임마누엘의 축복(창 12:1~3, 15:1~21, 22:16~18)은 아담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으며(창 28:15), 아담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로 개명되면서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교회)공동체로 확대되었다(창 32:28). 임마누엘의 축복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선포된

절정의 사건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4~16).

임마누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선포되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겔 37:26~27).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2천 년 전 ‘유양겔리온’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실현되었음을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증거했다. 이사야는 더 나아가 미래에 태어날 메시야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자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빌 2:6, 골 1:15),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평화가 선포되었다(골 1:20).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복음의 절정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하나님의 영(고전 2:11)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롬 8:9)인 성령의 강림함이 바로 성경이 지속적으로 예언해온 임마누엘의 온전한 성취를 이룬 것이다. 복음을 가리키는 유양겔리온은 신약에서만 약 76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0번이 사도바울이 쓴 편지들에 기록되어 있다.

복음의 용례와 관련하여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주로 복수형의 ‘복음’을 사용하고 있으며(good news), 특히 헬라어 구약인 칠십인역 성경(LXX)을 보아도 단수형 및 복수형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일반적인 관례와는 다르게 복음을 설명할 때 오로지 단수형으로만 표현하였다. 여러 모양의

세상적 좋은 소식들과는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그 진리의 복음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단수형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기독교 메시지를 ‘복음’이라는 말로 요약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사도바울이다. 바울은 그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교회들을 향해 보낸 편지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며, 그 증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롬 1:2~3),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좋은 소식(롬 1:16, 고전 15:1~4)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의 절정은 바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로 인해 성도들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골 1:20).

구원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

세상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격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17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명언으로 근대철학의 기초 특히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귀납법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성장한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엡 4:13). 아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선결과정이 있다. 바로 배우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한다. 성경을 읽고 배운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내면적 감정, 의지, 정서와도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때 기뻐하고 슬퍼하는지를 알아감 속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내면적 친밀감과 동질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롬 12:15).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온 누리에 좋은 소식으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을 때는 그저 값없이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먼저 그 선물 값을 치르고 구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저 값없이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값을 치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진리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이 구절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구원 혹은 구원받은 삶을 상징)을 사 먹을 수가 있는가? 돈 없으면 머리를 숙이고 구걸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어떻게 돈 한 톨 없이 와서 사 먹을 수가 있는가? 방법은 오직 하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미 그 포도주와 젖의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가능하다. 그 값을 이미 지불한 그 누군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 주고 산 선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축복이다(골 1:13).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은혜의 선물, 기쁨과 감사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롬 1:1), ‘그의 아들의 복음’(롬 1:9), ‘그리스도의 복음’(롬 15:19), ‘우리 주 예수의 복음’(살후 1:8)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였다(롬 1:16).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주로 ‘성경대로’ 또는 ‘기록된 바’라는 관용구를 사용함으로 예

그리스도 닦아가기

복음은 삶에서 생명 창출해내는 운동력, 삶 변화시키는 행동의 본(本)
말씀 듣고, 깨달은 말씀이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받은 대로 사는 신앙생활



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롬 1:2, 고전 15:3-4).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성경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패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을 학자들은 ‘원복음’(Protoevangelium)이라 명명하고 있다. 원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004년에 개봉된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Passion of the Christ)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주제로 만든 이 영화는 예수가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에게 뱀이 다가왔고, 그 뱀의 머리를 예수가 짓밟았다는 기록은 없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 고백하였으며(롬 1:6),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롬 1:16, 행 9:15-16, 13:47). 복음을 향한 헌신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역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적 책무임을 권면하였다(고전 6:20).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도 바로 이 절대적 진리, 복음 때문이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단숨에 달려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며 적용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다시 한 번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Rebuild-Up 강화를 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우선 급한 대로 편지를 통해 그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였다(갈 1:6-9).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단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공부나 세례를 베푸는 종교적 선포에 있지 않았다(고전 1:17).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었다(롬 10:9-10).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바울이 강조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선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입 밖으로 나타나 표출되는 것이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도 동일한 신앙적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속에 기록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권면하셨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마 7:21, 15:8)그 입으로 고백되는 ‘주’(Lord)가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의 인생임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오늘날 거리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대부분의 반응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목사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이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들의 반응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아픔과 애통이 21세기 교회 앞에 놓여진 최대 과제 중의 하나요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인 것이다. 2천 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복음은 그 어떤 신학적 교리나 신앙적 논리가 아니다. 그 어떤 성경적 지식 속에 갇혀 있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다. 복음은 실제 삶 속에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답게 변화시키는 행동의 본(모범)인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루어야 할 책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올바르게 증거하며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어쩌면 모든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Sunday Christianity(일요일의 기독교) 현상일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만 성도의 모습을 찾으려 하는 이원화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은 그 어느 때나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됴를 말씀하셨다(요 15:1-6).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에는 말라버려 불에 던져지게 됴를 경고한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끝부분만 살짝 붙어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다시 예수님께 붙어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거하면서 말라죽지 않고 버티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다시 붙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갈 2:20)이라고 도전하고 있다. 2천 년 전 하나님의 천사가 선포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복음, 그 복음은 단지 주일날만 해당되는 종교적 교리나 의식이 아니다. 주일날만 경건의 모양을 흉내 내는 삶이 아니다.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닦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의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몇 번이나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는 고백을 들어보았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남아있는 가족에게 ‘나처럼 살라!’라고 당당한 유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향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올바르게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예수 바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설 감사 · 추도예배



이해영 목사

설 · 감 · 사 · 예 · 배

* 가정예배 지침

-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도예배는 고인을 추모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가정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이나 상 위에 세워 놓고 그 앞에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

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미리 찬송가를 틀어 놓음으로써 찬송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4)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정성이 담긴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을 전하며 가족들의 특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친지나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550, 통248).....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레위기 23:23~32	가족 중에서
설교	새로운 삶을 축복하라	설교자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하나님의 나팔소리 (새180, 통168)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새로운 삶을 축복하라

들어가는 말

설날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설’은 시간적으로 새해 새 달의 첫 날인데 ‘설’을

설 때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는 의미로 오늘날 ‘살’로 바뀐 배경이기도 하며, 또 한 새해의 첫 날이기에 아직 낯설기 때문에 ‘설다’, ‘낯설다’ 등으로 유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나이를 더해가고 아직

도 낮은 우리의 인생 앞에서 매년 만나는 설날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은 한 해의 머리라는 뜻으로 ‘로쉬 하사나’라고 하여 나팔을 불며 축하하는 나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여 대속죄일로 끝이 나는 10일 동안 진행되는 것에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의 설날인 나팔절이 특별한 것은 이 날이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 초하루(7월 1일)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년을 시작하는 설날을 왜 한 해의 정중앙에 위치시켰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시점이 처음의 계획과 다짐들이 희미해져 가고 더러는 실망과 낙심으로 움츠러드는 시기라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인생의 한 가운데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써 다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신년이란 시간의 새로움이라기보다 영의 새로움을 알리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에 겨워 모든 미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바로 지금, 설날을 맞아 각자가 마음의 나팔을 불어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나팔을 불며 새로운 기쁨을 선포하라”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숫양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쇼파

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어린 숫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건에서 유래합니다(창 22:1~14). 또한 7월 1일 쇼파르를 불며 시작한 나팔절은 열흘째 되는 날(7월 10일) 절정이 되어 끝나는데 이날이 바로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됩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어린 양의 희생과 속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로서,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의 새 날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아 새해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나가는 말

설날은 인생의 어느 전환점에서든지 나팔을 불며 새로운 시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삶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나팔을 불며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라는 것이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라는 선포가 있는 날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게 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추 · 도 · 예 · 배

예배순서

개식사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6:8-11.....	다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438, 통49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4:16-18.....	가족 중에서
설교	나팔과 함께 영원히 살다	설교자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436, 통493)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나팔과 함께 영원히 살다

들어가는 말

고인의 소천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도예배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인을 추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단지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16절).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할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레 23:24). 나팔을 불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새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이란 단지 시간적인 새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과 새로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듯이 고인을 추모하며 주님의 임재와 재림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 멈추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16절).

사도 바울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감정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에 고인을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듯이 고인을 추모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17절).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계 21:5).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 되면 사과에 꿀을 찍어서 서로에게 먹여 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라는 축복의 인사와 같은 것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우리는 분열과 단절이 팽배한 이 시대에서 오직 연합과 일치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요,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며,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고백 같은 것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주인공은 노숙인을 섬기는 산마루교회다.

산마루교회가 처음부터 노숙인 사역을 한 것은 아니다. 2006년 교회가 마포구 신공덕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신공덕동 주변 서울역에 노숙인이 3천여 명이나 있다.

2006년 어느 날, 노숙인 서너 명이 산마루교회를 찾아왔다. 얼마 후 여덟 명의 노숙인들이 한 패가 되어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는 그들에게 빵과 커피를 나눠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숙인이 20여 명으로 늘었다. 노숙인들 사이에서 “산마루교회에 가니 사람대접을 잘 해주더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노숙인들을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사랑의 농장’도 만들었다. 함께 농사를 짓고, 노숙인 자립을 돕는 ‘해맞이공동체’를 세웠다. 노숙인들을 위한 해맞이대학도 만들었다.



노숙인을 위한 세족식.

어느 날 갑자기 노숙인 120여 명이 찾아왔다.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노숙인을 돕던 봉사단체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산마루교회는 방역대책을 마련해 계속 노숙인들을 섬겼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매주 100여명의 노숙인이 예배드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명의 노숙인 성도가 집사직분을 받았다.

산마루교회는 노숙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 함께 예배드리고, 돌보고 있다. 애굽에서 노숙인처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었을 때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씀 중에 성결법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깨끗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숙인들이 몸과 옷을 깨끗하게 하자 범죄율

이 낮아졌다고 한다.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은 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숙인을 위한 목욕과 빨래시설은 꼭 필요한 사랑의 시설이다. 교회가 있는 상가 1층 건물을 목표로 2012년부터 노숙인들과 함께 헌금을 했다. 어느 독자가 전액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목사가 사양했다. 당시는 기금을 모을 생각만 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숙인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1년 여 동안 680만 원이 모였다. 기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반 교인 성가대와 노숙인 성가대가 함께 2014년 12월 성공회정동성당을 빌려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2015년 11월에도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다. 약 1억 5천만 원을 후

원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 기쁨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다. 산마루교회가 노숙인을 위한 목욕과 빨래시설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온누리교회 비전헌금으로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노숙인을 위한 목욕과 빨래시설을 만드는 일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산마루교회는 올해 1년 동안 부지런히 기금을 모아 시설을 만들려 하고 있다.

산마루교회 이렇게 도와주세요

산마루교회 노숙인사역은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한 노숙인들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돕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 성도 100명밖에 되지 않는 산마루교회는 주일 오전 7시 30분 1부 예배(노숙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아침식사를 100여명의 노숙인에게 대접한다. 노숙인을 위한 예배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지난해 6월부터 격주로 봉사하고 있다. 식사비용을 지원하며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그가 오는 날에는 특식이 나오는 날이라며 더 많은 노숙인 성도들이 온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후원문의: 02-3273-0891

후원계좌: 하나은행 (예금주 이주연)

261-910261-24207

/ 김영수 기자 k4458@onnuri.org

대형교회와 노숙인 교회의 아름다운 동행

온누리교회, 노숙인 위한 목욕시설 마련하다가 먼저 준비해온 산마루교회 지원 교단 울타리 넘은 상생 모델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연말 노숙인을 위한 목욕시설 마련을 준비했다.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영등포역 앞에서 노숙인 봉사를 해온 광야교회를 지원하고,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과 노숙인들도 지원해왔다. 목욕시설 지원 구상은 노숙인들을 위해 보다 구체적·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미 다른 교회가 목욕시설 준비를 해오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공덕동의 산마루교회(이주연 담임 목사)였다.

산마루교회는 10년 전부터 주일마다 노숙인 예배를 드렸고, 서울 부암동과 경기도 포천에 밥을 빌려 노숙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3년 전부터는 목욕·빨래시설 마련을 위해 헌금하며 연말이면 ‘노숙인을 위한 음악회’를 통해 모금해왔다. 이재훈 목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교회를 돕자”고 생각을 바꿨다.

기적이 일어난 날은 지난 17일 주일예배. 매월 한 번씩 목적을 정한 ‘비전헌금’으로 목욕시설 지원을 이 목사가 제안하자 1억 5000여만 원이 모였다.

온누리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전헌금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고 했다. 온누리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갔다. 지난 23일 40일 새벽기도회를 마치는 날,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를 초청해 설교를 부탁한 것. 이 자리에서 이재훈 목사는 이주연 목사에게 “저를 부목사로 생각하시고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시키시라”고 했다. 노숙인 사역에 관한 한 산마루교회의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감동은 릴레이 되는 법.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케이블 채널 CGNTV를 통해 소식을 알게 된 텔런트 김혜자씨가 1,000만 원을 헌금했다. 이재훈 목사는 또 ‘목회사관학교’에도 이주연 목사를 강사로 초대했다. 예비 목회자들에게 10년간 노숙인 사역을

해온 경험과 비전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두 교회는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 규모의 벽을 허물고, 장로교(온누리교회)와 감리교(산마루교회) 사이 교단과 교파의 울타리까지 넘어섰다.

그동안 산마루교회의 목욕시설 마련은 어렵게 이어져왔다. 일반 교인 100명, 노숙인 교인 100명이 출석하는 산마루교회에서 1,000원, 5,000원씩 정성을 힘겹게 모아 현재까지 모금한 액수는 1억5000여만 원. 그러나 매년 모금액보다 임대료 인상 속도가 빨랐다. 온누리교회의 지원은 천군만마가 아닐 수 없었다. 산마루교회의 노숙인 목욕·빨래시설 마련은 속도가 붙게 됐다.

그간 한국 개신교계엔 대형 교회 위주의 ‘승자(勝者) 독식(獨食)’ 문화가 스며들어

서 신자뿐 아니라 선교와 봉사·구제도 대형교회가 독차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의 동행은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의 공생(共生)·상생(相生) 모델로도 주목받을 만하다.

이주연 목사는 “대형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이 많은데, 저부터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개신교가 성장·확장 시대를 넘어 새로운 질적(質的) 도약을 해야 할 시점에서 사회에 영감을 불어넣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 이 글은 1월 29일자 조선일보 A21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의 기사를 전재했습니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선교사들의 든든한 후원자 ‘에젤선교회’

중보기도, 선교사 자녀 후원, 성경공부 교재 출간

에젤선교회(EZER Community Fellowship)는 선교사의 친구이자 동역자다. 선교사 훈련과 파송은 하지 않지만 교파를 초월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찾아가 회복사역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소그룹으로 각 처소에서 매주 모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들이 매월 백 명이 넘는 선교사들에게 생일 카드를 쓰고, 어린이날, 추석과 성탄절에는 손수 제작한 선물과 카드를 보내고 있다.

에젤선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중보사역이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선교사를 향한 마음이 더욱 애뜻해진다. 장애인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원, 선교사 세미나, 현지인 목회자들과 선교사 영성 함양을 돕는 성경공부 교재 제작 등 선교사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선다. 전방에 나간 선교사들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기도와 재정,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에젤이다.

60개 단체 파송 선교사 350명 섬겨

에젤선교회는 1995년 5월 창립됐다. 당시 하용조 목사가 홍정희 권사에게 아프리카 선교사의 편지를 건네주면서 소외된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 에젤선교회가 문을 열자 교단을 뛰어 넘어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1년이 지난 지금은 60여 개의 협력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350여 명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다.

에젤선교회는 홍정희 권사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홍 권사는 1997년 하용조 목사와 함께 중국 북경, 대련, 천진을 다니면서 선교지의 환경과 상황, 관계의 어려움 등을 보게 됐다. 그 곳에서 하용조 목사는 홍 권사에게 선교사들의 갈등, 외로움과 아픔을 에젤선교회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때부터 에젤선교

회는 선교사들을 위한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했다. 중국 천진을 시작으로 러시아, 네팔, 북경, 곤명, 필리핀, 베트남, 일본, 요르단, 태국, 멕시코, 스리랑카, 이탈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달려갔다.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이다.

지난해 성탄절에 에젤선교회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이들이 에젤선교회에서 보낸 것은 무엇이든 좋아해요. 선물에 담긴 사랑과 관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EZER’ 로고가 새겨진 향초는 이 땅에 빛으로 남아 이들을 섬기라는 기도였고, 소금은 선교사로서의 맛을 잃지 말라는 뜻인지 알겠어요. 정성껏 준비해준 간식과 성탄 장식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 즈음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에 선물을 보낸다. 지난해에는 61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에 성탄선물을 보냈다. 에젤선교회에 허입된 선교사들에게 매월 \$100 현금을 보내며, 허입된 선교사가 아니어도 선교사라면 누구나 에젤선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에젤이 발행한 책들.



온누리M센터 이주민을 위한 세미나에서 에젤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에젤

에젤선교회는 선교지에서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선교사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소정의 장학금 지원도 시작했다. 건강한 사람도 선교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장애인 선교사는 말할 수 없다. 장애인 선교사의 자녀들이 의료혜택은 물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에젤선교회는 소외된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가 있는지 열심히 찾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에젤선교회는 훈련프로그램이 부족한 선교지 소식을 전해 듣고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선교 관점으로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공부교재’들을 직접 출간해 보내고 있다. 이 교재들은 목마른 선교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

〈레위기〉, 〈마태복음〉, 〈거룩한 전쟁〉, 〈에베소서〉, 〈성경과 해석〉 등이 출간되었다. 올해는 빌립보서와 중보기도에 대한 교재 준비가 한창이다. 대부분의 책자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었고, 일어, 영어, 러시아어 번역도 진행 중이다.

선교지에는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재정후원과 더불어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 파송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 에젤선교회의 사역의 필요성이 바로 이것이다. 에젤선교회, 그 이름처럼 선교사들을 위한 돕는 배필이 될 것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기고 홍정희 권사

에젤선교회는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다. 또는 ‘성령님이 기도로 도우신다’는 뜻으로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

나는 1995년, 하와이 코나에서 예수전도단(YWAM) 훈련을 받고 난 이후 선교와 선교사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해 하용조 목사님이 선교사를 향한 내 마음을 보시고 중보기도사역을 권하셨다. 선교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중보기도는 더욱더 몰랐는데 마음 하나로 시작한 단체가 바로 에젤선교회다. 예나 지금이나 에젤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은 선교사에 대한 마음 하나는 누구보다 열정적이

고 순수하다. 선교에 대해 미리 알고, 훈련받고, 찾아온 동역자들보다 선교에 대한 관심과 선교사에 대한 사랑 하나로 모인 이들이 더 많다. 이렇게 10년 넘게 중보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다. 어느덧, 이들은 선교지 현황과 선교사들의 상황에 베테랑들이 되었다.

성도라면 누구나 사역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중보자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최전방에서 사단과의 끊임 없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방에 지원군이 반드시 필요

하다. 지원군들은 무엇보다 선교사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물론 후원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말씀 안에 올바로 서있다 보면 자연스레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보인다. 그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보면 선교지의 필요가 보인다. 선교는 그렇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 몸이 향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에젤선교회 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신관 ACT29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출기도실.
지역별로 소그룹 기도모임이 있다.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ezer.or.kr

후원계좌: 100\$ 선교

(신한은행 140-002-284381)

일반 후원 (SC제일은행 327-10-011919)

문의: 라근하 간사(792-1628)

탈동성애 다큐영화

동성애는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품어야 한다



동성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화다. 프로듀서이자 영화감독 김광진 씨는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1년 10개월 동안 사전조사와 탈동성애자들을 인터뷰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명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 첫째, 동성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둘째, 동성애가 무엇인

지, 셋째, 동성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단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진리, 실체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숨기고 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호 트랜스젠더이자 탈동성애자인 김유복 씨가 겨우 몸을 가누며 하는 말이다. 칠십 평생 동성애자로 살았던 그의 마지막 절규가 영화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동성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돼 목사가 된 두 사람을 소개한다. 이요나 목사와 심여호수아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요나 목사는 23년 전 이태원을 주름 잡는 동성애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동성애자를 위한 업소가 200개 이상인 종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여호수아 목사는 청년 때 상상도 못했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자살하는 동성애 친구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 때부터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성애라는 사슬을 십자가로 끊었다.

2015년 6월 9일 시청에서 열린 동성애 쿼어 축제에 온 나라가 발각 뒤집혔다. 이날 동성애자들은 확성기를 들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과 크리스천들은 반대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게이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쿼어 축제에 참가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부산대 물리학과 김원평 교수는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동성애자는 이삼십 대가 가장 많고, 오십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관성 쌍둥이는 선천적, 후천적 영향이 똑같다. 일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0%다. 선천적인 것은 10%도 안 된다. 이것은 동성애가 환경적, 후천적 요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탈동성애를 위한 교회의 역할

카메라는 동성애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어둠까지 들쭉다. 바로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이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 연안섭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병원에 에이즈에 감염돼 온 동성애자들은 모두 동성애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갇아먹어 치매가 오기도 하고, 반신불수 혹은 사지마비가 됐다.”

2013년 1,000명 에이즈 환자를 조사결과 감염경로가 모두 성관계였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한다.

다시 서울 이태원 쪽방촌에 사는 탈동성애

자 김유복씨를 만났다. 한눈에 봐도 깊은 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동성애에 빠져있는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 하나고 물었다.

“정말 애처로워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도시 랜케스터에서 매년 열리는 ‘동성애 치유를 위한 세미나’도 조명했다. 이 세미나에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를 극복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한다.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미국 동성애 치유를 위한 회의를 한다.

동성애 치유 사역자인 게리 잉글랜드와 펠리사 부인은 둘 다 탈동성애자다. 그들은 동성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했다.

“대부분의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동성애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 개인이 동성애를 선택하듯이 그 길을 버리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김광진 감독은 관객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취재를 하면서 동성애가 거짓과 음란의 영임을 알게 됐다. 우리가 진리와 거룩의 영을 사수해야만 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성경체질 그리고 건강 4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체질별로 분석한 연구는 영국의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가 시작했다. 팀 라하이 목사는 기질론을 보편화시킨 인물이다. 5회에 걸쳐 성경 속 인물들을 기질론으로 풀어낸다.

소음인 아브라함



류모세 선교사
(경희살롱한의원 원장,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리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리를 데려갔더니”(창 20:1~2).

물은 바람을 만나면 물보라가 치고, 불을 만나면 수증기로 사라지고, 흙을 만나면 흐름이 막힌다. 이처럼 세상에는 온통 물의 존재를 뿌리째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물 기운을 타고난 소음인들은 바깥세상을 불안해하고,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본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 발현되었기 때문이었지만 소음인은 눈치코치와 육감이 발

달했다. 아브라함은 모든 크리스천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 받고 있지만 창세기에 묘사된 삶은 그다지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지 않다. 그의 인생 최대의 오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 사리를 누이라 속인 사건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장면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온다. 창세기 12장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였고, 창세기 20장은 그랄 땅의 터줏대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였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자마자 발생한 사건이다. “시작이니까 그러려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상황이 다르다. 신앙생활을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

것은 기질적인 약점에서 오는 죄 문제는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적 약점까지도 덮어서 쓰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결국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는가!

물은 일정한 형체 없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한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물 기운을 타고난 소음인은 자기주장과 자기 색깔이 별로 없다. 그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하다. 거대한 조직에 숨어서 다름보다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천사표 사람들이다.

소음인 아브라함의 행동은 창세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초장은 좁고, 양떼는 많아져 룯과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며 양보의 미덕

을 발휘한다. 어디 이 뿐인가? 아내에게 꼭 붙잡혀 공처가로 살아가는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사라의 나뭇의 계획을 세워 남편을 설득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씨받이로 후사를 얻으려고 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뜻에 순순히 따랐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창 16:2). 하지만 나중에 하갈이 배가 불러 안방바님 행세를 하며 주인인 사리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첩을 얻은 문제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내 사라에게서 나왔다. 사라의 하갈을 쫓아내자고 남편을 독려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창 16:6).

만약 당신이 이런 남편과 산다면 어떻게? 아마 화병 제대로 걸릴 거 같은데...

“예수바보 목회자 되겠습니다”

2016 목회사관학교 ... 비전공유 및 팀워크 다져



목회사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 조별 발표를 하고 있다.

2016년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재충전하는 장이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 새롭게 주신 ‘예수바보행진’ 비전을 심도 있게 묵상했다. ‘예수바보’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목회사관학교 첫날에는 목회자 일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를 주제로 열린 공개 세미나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와 신학생들도 참석했다.

김기원 전도사(지구총교회)는 “사역을 하다보면 가끔 공허함이 찾아올 때

가 있었는데 이번 공개세미나를 통해 그 이유를 알고, 위로받았다”고 말했다.

2일부터 5일까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가 축매적 리더십,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션, 선교적 삶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폐회예배 설교는 신바루교회 이주연 목사가 했다.

비전공유뿐만 아니라 교제와 나눔도 활발했다. 아웃팅과 팀빌딩 큐티나눔, 조별 예수바보콘서트 등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다.

이재원 목사(양재 차세대)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고, 박윤현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리더십에 대해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양원 전도사(서빙고 예배본부)는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했고, 김민석 전도사(W공동체)는 “예수바보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고, 도전받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6년 하반기 결혼예배 순서추첨

3월 5일 오후 1시 서빙고 두란노홀

2016년 하반기 결혼예배 순서를 추천한다. 3월 5일 오후 1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추첨식이 열린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예배를 신청한 성도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 신랑신부 혹은 양가 부모 중 한 명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결혼예배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약금 50만원과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예비 신랑신부가 온누리교회 성도일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한 명만 온누리교회 성도일 때는 해당성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다 교회성도는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부모가 온누리교회 성도면서 예비신랑신부가 타 교회 교인일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와 예비 신랑신부가 다니는 교회의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 지참해야 한다.

서빙고: 홍수정 02-3215-3179

양재: 안수정 02-3215-317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융합선교의 모델이 될 것”

2000선교 비전컨퍼런스, 선교비전과 방향 공유

2000선교 비전컨퍼런스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교분과위원회와 2000선교본부가 온누리교회 선교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융합한 선교적 교회를 도모했다”면서 “앞으로 30년은 융합선교 구조를 유지하고, 선교사들에게 세계선교의 흐름과 전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본질에 충

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역에 대한 청사진도 그렸다. 2000선교본부는 올해 선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선교를 위해 선교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선교협력 기관들과 융합선교를 통해 순기능을 강화하는 선교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승배 장로는 “온누리교회 선교가 양적 성장에 이어 이제는 질적 성장도 이뤄질 것”이라며 “융합선교의 모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전도집회 ‘비긴어게인’ 참가자 4명 세례 받아

전도사역본부, 전도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주효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40~50대 남편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의 열매가 맺혔다. 전도집회 참가자 네 명이 지난 주일(3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세례를 받았다(간증 11명).

전도사역본부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도집회 전 기도모임, 전도집회 비긴어게

인, 전도집회 후속 프로그램을 이어나갔다. 전도집회 후속프로그램 ‘비긴어게인 부부나들이’는 지난 1월 23일 진 새골 온누리교회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됐다. 부부관계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16가정이 참석했다. 교회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남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부부의 역할과 남녀의 차이와 부부대화를 주제

로 김성목 장로(아버지학교 본부장), 한은경 권사(어머니학교 본부장), 임향재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박승자 전도사(어머니학교 주강사)가 강의했다.

남편과 함께 참석한 김진숙 성도는 “남편이 성경에 부부가 살아가는 지혜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라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세례명단: 김태형 621216, 이정준 690721, 전영수 730325, 조해규 67012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사회선교본부 워크숍

공동체에서 실천 가능한 사역 논의

사회선교본부가 공동체에서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월 3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 사회선교부 워크숍에 사회선교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각 공동체에서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사회선교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체가 가출 청소

년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출청소년 밥퍼’, 순원의 고향 미자립교회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미자립교회 브릿지’ 등의 사역이 논의됐다. 탈북자, 청년, 노인 등을 위한 사역들도 논의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은 3월 5일 열리는 목양대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재 농어촌선교팀 설맞이 자선장 열어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금흥사역팀과 함께 설맞이 자선장을 열었다. 지난 주일(31일) 열린 자선장 수익금은 열악한 농어촌교회에 전달된다.

이날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추운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다. 가래떡, 참기름, 들깨가루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성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농어촌교

회를 돕기 위한 자선장에 동참했다.

임신빈 팀장(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교회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을 받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6년 전부터 농어촌교회를 돕기 위한 자선장을 열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창조과학선교회 팀원 모집

창조과학선교회 팀원을 모집한다. 창조과학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매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CGNTV홍보관에서 모인다.

문의: 010-3869-7785

22기 전도폭발학교 훈련생 모집

22기 전도폭발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주간반은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반은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된다.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2층

콘서트홀이다. 회비는 7만원.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주간반 김태리 010-7900-3908

저녁반 이규성 010-3388-0676

/ 김영선 기자

제1086호 | 2016년 2월 7일(주일)

■ 창조과학스쿨 간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 오금환 집사(일산공동체)

모태신앙인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단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강한 믿음이 있었다. 진화론적인 이야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2014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였던 천지창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창조과학스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일대일 동반자와 함께 수강했다.

4주 동안의 창조과학세미나는 그동안 천지창조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였던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해 사실적이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전부터 궁금했던 공룡의 존재와 신기한 화석에 대한 것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설명되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시작된 빙하기와 공룡의 멸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의 교만과 죄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많은 피조물들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했구나’ 하는 묵상을 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사회와 가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각 전공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깨닫고, 창조과학 강사로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얻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 그들은 진화

론이 팽배해져 있는 과학 및 인문학 분야 등에서 자신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고 있었다. 각자의 은사를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열정과 헌신이 내게 큰 도전을 주었다.

창조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국내의 현장 탐사과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국내는 마이산 탐사, 해외는 중국 장가계 탐사를 다녀왔다. 그 거대한 지형들이 노아의 대홍수사건과 같은 격변을 통해 설명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연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껏 과학적 지식이 없이 성경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왔지만 창조과학스쿨을 통해 창조의 원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창조과학스쿨과 탐사에 참여한 이후 나는 창조신앙 회복을 위한 작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진화론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 속에서 창조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창조질서에 대해 더욱 확신 있는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 전도집회 ‘비긴어게인’ 세례 간증



/ 전영수 성도

아내를 보면서

어린 시절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고,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다녔다. 그런데 학교 재단의 운영비가 많은 것을 보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그 이후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아내가 종교가 없다는 것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을 2차례 겪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당신이 원하면 교회에 다녀도 괜찮은데 나한테 같이 다니자고 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그렇게 아내가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넘었다. 딸과 아들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 때문인지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가끔씩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아빠로서 참관하는 정도였다. 그것마저도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다. 그렇게 1년에 두세 번 교회에 가면서 아내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알 수 있었다. 교회에 몇 번 온 적 없는 나를 기억해주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꼈다.

지난해 12월, 아내가 저녁에 콘서트 비슷한 행사가 있다며 교회에 가자고 했다. 교회행사라는 말은 안했지만 눈치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려고도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기로 결정했다. 그 행사가 바로 전도집회 ‘비긴어게인(40~50대 남편 위한 맞춤전도집회)’이었다.

별 생각 없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동안 부부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게 됐다. 또 교회 사람들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지난달에는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전도집회 ‘비긴어게인’ 후속모임에 참석했다.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 새벽기도를 다녔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라지만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음 한 구석의 불신이 조금씩 사라졌다.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아직까지 완벽한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 결심을 한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 대학부 네팔 아웃리치 간증



/ 강건 형제(하늘공동체)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 되기를

대학부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네팔 꼬혈뽕(Kohalpur)과 네팔 건지(Nepalganj)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출국 한 달 전부터 매일 중보기도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팀원 사랑, 네팔 사랑을 간구했다. 이 세 가지 사랑이 없다면 결코 네팔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팀이 하나 되기를 소망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팀이 되기를 기도했다. 무엇보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팔을 품고 사랑하기를 바랐다.

아웃리치 첫 날, FA 선교사들의 친구들을 초청해 전도집회를 열었다. 나는 지난해 FA 8기로 네팔에 단기선교를 왔었다. 그때 내가 전도했던 친구 5명이 새로운 친구 10명을 데리고 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했다.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네팔 현지 교회 주일예배들을 섬겼다. 어린이예배를 드리며 그곳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해 네팔에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네팔 꼬혈뽕 지역 30개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예배컨퍼런스를 섬겼다.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교회 옥상에서 3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했다. 목소리가 쉬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네팔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아웃리치 팀장으로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아웃리치 팀장을 맡았을 때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지혜와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셨다. 내 부족함을 채워줄 16명의 팀원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붙여주셨다. 네팔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과거형에 기억하고 싶지 않다.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들이 기초가 되어서 한국에서의 믿음생활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단단해지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살고 싶다. 씨를 뿌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성실하게 노력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것이다.

■ 예수제자학교(JDS) 수료간증



/ 임주영 자매

내가 변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빠르게 회복시키셨다. 불과 7개월 전 나의 모습이 오래되고 낡은 존재 같다. 전에는 하루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소원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차갑게 대했다. 누군가 죽어가고 ‘그 사람의 운명이겠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내가 예수제자학교(JDS)를 통해 새 사람이 될 줄 상상도 못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은 낯설다. 가끔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기도도 안 되고, 입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하고 웅얼거릴라 끝날 때가 많았다. 예수제자학교 강의는 내게 생명이 같았다. 어떤 강의가 이어질지 너무 궁금했다. 머릿속에 온통 강의에 대한 기대감뿐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 되면 야근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 이제는 나머지 것들이 하찮아 보인다. 세상의 유행 같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 싫다. 하나님께 큰 기대를 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다. 깊은 걱정이 사라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라졌다. 예수제자학교 면접 때 왜 지원했냐는 질문에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답했었다. 아직 그 비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다음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찬양할 때는 뭐라고 하실까. 이 자연을 통해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감사하다는 말을 수 없이 해도 부족하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 장로칼럼 우승구 장로(강서공동체)

농어촌사역은 영적 블루오션

“7년 되면 떠나라”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내가 7년의 세배가 넘는 23년 동안 이 자리에 있다. 떠나지 못했지만 그동안 은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쿨을 접했고, 다양한 사역에도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사역이 있다. 97년부터 참여한 ‘은사발견사역팀’ (네트워크사역: 두란노로 전환되었다가 현재는 중지 상태)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학교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등이다. 가정사역은 나의 열정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역이다. 4년 전부터는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을 섬기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사역에 대한 열정을 많이 부여주셨다. 농어촌사역팀에 합류한지도 4년째 접어들었다. 나는 농어촌 출신이 아니다. 뜻하지 않은 사역분야였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것이다. 농어촌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아내와 의논해서 농어촌상품 판매를 하는 사역팀 이름을 ‘도농 브릿지’라고 지었다. 도시와 농촌은 한 몸이고, 서로 사랑하며 상생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다리(Bridge)가 되자는 뜻이다. 3년 동안 아웃리치에도 참여해보고, 여러 번 농어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을 만나면서 사명을 느끼게 되었다.

농어촌교회 고령화가 심각하다. 어르신

성도들이 천국에 가시면 빈 농촌은 어떻게 될까. 그 지역과 사람들, 목회자와 사모들이 자주 생각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농어촌사역은 팀사역이라기보다 공동체와 사역들 간의 연합이 필요한 종합사역이다. 농어촌사역은 차세대, 대학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가정사역, 상담사역, 봉사활동, 농어촌체험, 관광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은누리교회가 농어촌사역에 더 많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해외선교, 지역선교, 사회선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농어촌교회를 공휴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상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동체와 각 사역본부가 연합해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전문적 훈련도 받아야 한다. 귀농과 귀촌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농어촌사역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선교사의 전문적 훈련과 단기 아웃리치의 낮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나 사역본부(팀)가 농어촌교회와 자매결연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아웃리치와 예배,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다. 농어촌사역의 경험이 다른 사역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농어촌사역은 누구에게 열려 있다. 개인이거나 교회, 지역사회 모두를 연결해주는 영적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한다.



✎ 권사칼럼 차혜숙 권사(부천 은누리교회)

혼인잔치 하인처럼

김포M센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며 기도하는 중에 김포 양곡에 있는 하늘바람교회 목사님을 만났다. 마침 하늘바람교회 목사님도 외국인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어 동역하게 되었다. 부천 은누리교회와 김포 양곡 하늘바람교회의 협력사역은 소형교회와 대형교회가 교단을 초월해 연합한 좋은 모델이 되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 모든 것을 통용했다고 한 것처럼 함께 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지금은 캄보디아공동체가 되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글을 공부하러 온 형제들에게 말씀 전하는 정도였다.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 통역에 의지해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통역하는 친구가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 또 다른 친구가 통역하기를 반복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 성경책을 들고 예배드리러 왔던 썸을 이라는 청년이었다. 그 청년을 통해 이곳이 예배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한국어를 하는 친구가 통역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 캄보디아어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4년 전 학교 강당을 빌려 다문화축제를 연 것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축제에 필요한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아직도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때

모인 인원이 300명이 넘었다. 서빙고 1부 챔버팀, 찬양팀에서 50명이 참여했다. 부천 은누리교회에서 안내를, 고등부와 청년부가 장소 세팅을 해주었다. 감동적인 행사였다.

은누리교회가 파송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은 김포M센터에 나오는 형제들을 만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2014년 부천캠퍼스 사랑공동체에서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갔을 때에도 M센터와 연결해서 전도집회를 진행했었다. 지난해에는 썸을 형제가 전도한 가족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 곳을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김포M센터 사역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다. 여기에 온 형제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사역자가 세워지는 귀한 사역이다.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다. 캄보디아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일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예배찬양팀과 함께 전도여행을 할 계획이다. 이 전도여행을 위해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의 계획만으로 할 수 없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섬길 것이다.

기적의 현장에 있어 기쁨을 경험했던 혼인잔치 하인처럼 김포M센터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받는 특권을 누리고 싶다. 김포M센터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신앙에세이 김영배 목사(서초C공동체)

삶은 곧 영성형성 과정

‘영성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약간 생소하다. 단어의 의미가 생소할지 몰라도 성도들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과 더불어 영성형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영성형성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형성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과정이 더 중요하다. 영성형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큰 틀 속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경은 성도의 인생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영성형성을 달갑게 맞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결과중심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과정에 충실하면 행여나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강박을 주기 때문이다. 소중한 과정을 무시하고, 지나친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즉시만족(instant-

gratification)을 갖게 하는 현대문화 역시 과정으로서의 영성형성을 방해한다. 그렇다고 세상 문화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다.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현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과정으로서의 영성형성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전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헨리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해주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인성을 깨뜨리는 말이다. 하나님의 전인성은 성도 각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인성을 인정하면서 삶을 그분께 의탁해야 한다. 특별하고 성공적인 영역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다.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뿐만 아니라 룯기에

나오는 나옴처럼 남편 잃고, 두 자식마저 순식간에 잃어버린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마저도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 읊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표상이다.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났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전인성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

요즘 우리 주변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울면서 마음을 나눠도 인간이 해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케 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신앙의 완숙자가 될 것이다. 영성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후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 오전10:30~12:30

-서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온누리 전도학교 14기 훈련생 모집

기간: 3월 20일~5월 22일(주일)

시간: 매주일 8:50~10:10

신청: i-school홈페이지 또는

주일 통합 데스크

장소: 서빙고 홍보관

회비: 4만원

문의: 문성찬 팀장(010-4572-7373)

2016년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일시: 3월 9일~5월 4일, 매주 수

12:40~16:30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비전홀

접수: ischool접수, 주일 서빙고 본관

로비 통합데스크 접수

대상: 남녀 세례교인 누구나

강사: 호스피스 전문교수 16인(17과목)

문의: 장은숙 팀장 010-3715-1652

한국창조과학회 간사 모집

모집부문: 교육 및 행정 담당 1명

제출서류: 아력사,신앙고백서(자기소개서)

문의: 한국창조과학회본부(02-419-

6465)

제출: acc@creation.kr

아름다운 동행(부부코칭 프로그램)

대상: 온누리교회 부부대상

(순장님 부부 우선)

일정: 3/19(토)~5/7(토) 오후 3시~6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회비: 가정 당 15만원

(교재비, 수련회비 포함)

접수방법: 아이스콜 신청 또는 전화 및

이메일(olivegarden8@naver.com)

정원: 선착순 24가정(입금기준)

문의: 윤병욱 팀장(010-5255-7363), 강

창모 총무(010-2042-2323)

CMN 라파뎀 의사, 간호사 봉사자

모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료봉사

일시: 매월 4째 주일 오후 4~6시, 서빙고

캠퍼스

문의: 심형섭(010-3227-9915)

CGNTV세라핌창찬단원모집

일시: 2월 28일 주일 오후2시

장소: Acts29홀

대상: 2학년~6학년

오디션: 자유곡1곡

문의: 최혜경(010-4270-6047)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지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어린이(초등)/부모 하트 스쿨 모집

기간: 3월 12일(토) ~ 6월 14일(토)

시간: 매주 토요일 15시~18시

장소: 양재 JDS홀, 충성홀

인원: 30가정

문의: 이현대 전도사(010-5415-3879)

에이엔키즈 신입 원아모집

경배와찬양의 어린이 영어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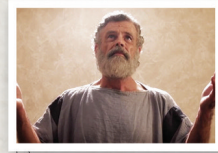
가족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선물 CGNTV 설 특집 프로그램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방송시간 : 2월 7일(일) 오후 9시

한동대 장순홍 총장의 삶과 비전,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드라마〉폴리캡

방송시간 : 2월 8일(월) 오후 2시 50분

소녀 안나와 사도요한의 제자이자 순교자인 폴리캡의 이야기가 감동을 선사합니다.



토크콘서트 힐링유

방송시간 : 2월 7일(일) 오후 6시 20분

가야금 연주자 문재숙 교수와 예가희 단원들이 출연해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방송시간 : 2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가수 최금비가 은혜와진리교회를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방송시간 : 2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남남북녀 커플 김권능, 김영희 전도사 부부의 특별한 명절과 사역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CGNTV 제4기 시청자 모니터단 모집

CGNTV와 함께 방송선교 여행에 동참할
여러분의 소중한 재능기부를 기다립니다.“ CGNTV 시청자 모니터단은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는 선교여행입니다.”

1기 모니터단원의 고백

“

활동기간

2016년 3월 ~ 10월

활동내용

모니터 보고서 작성, 정기모임 참석

접수기간

2016년 1월 8일(금) ~ 2월 19일(금)

지원방법

www.cgntv.net 접속 후 지원서 다운받아 접수

문의

편성기획팀 02-3275-9518



주 | 간 | 편 | 성 | 표

2/7(주일)	2/8(월)	2/9(화)	2/10(수)	2/11(목)	2/12(금)	2/13(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4:50 [드라마] 폴리캡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김웅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2015 추앙재단 목회강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홀 애두케이션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신학자들의 이슈&토크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세브블레싱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일터사명 컨퍼런스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사도행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9:00 일터사명 컨퍼런스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00 2016 리더십 수련회 The One 주제강의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